

#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현장 교사의 인식

함 승 연<sup>†</sup>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erception on Outcomes and Challeng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by Industry Department Teach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eung-Yeon HAHM<sup>†</sup>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quiry of perception on outcomes and challeng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by industry department teach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herefore, it is highly desirable that researchers to survey what are the biggest outcom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and positive ripple effects of outcomes, what are the biggest challeng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and importance of challenges undertaken 10 years. The survey included 100 industry department teach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on 9 region from Korea. The analysis of survey results was by regions, industry department teacher's career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biggest outcom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was extension of opportunity on continuing education and supply a demand for entrance university o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biggest positive ripple effects of the outcomes was also extension of opportunity on continuing education and supply a demand for entrance university o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biggest challeng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and importance of challenges was not to us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score for the entrance on the most universities.

**Key words :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dustry Departmen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 I. 서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은 정부에서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11)’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정책으로 전문계고1) 학생들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고 ‘2005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2001.12)’을1)마련하면서 도입된 것이다(Hahm, S. Y., 2007). 2005학년도 수능의 평가

1)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이전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명칭을 전문계고와 특성화고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2-3704-3527, syhahm@kice.re.kr

목표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Chang, H. K., Park, J. U. etc., 2006; Heo, G. etc., 2012; Kim, D. T. etc., 2013). 이후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 1. 26)’이 발표되면서 ‘직업탐구 선진화’ 방안에 기초하여 직업기초능력평가에 해당하는 능력 중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능 직업탐구 영역은 2005학년도 수능체제를 벗어나 2014학년도 수능 체제로 출제(Kim, J. G. etc., 2012)되고 있다.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2004년은 직업탐구 영역이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5개 계열이었으며 선택 과목 수가 17개, 행동영역은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등 4개 영역이었다. 이러한 형식은 2014학년도 수능체제로 전환되면서 수능 직업탐구 영역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기초 문제해결 영역과 문제 형식 및 수준을 유사하게 출제하였으며, 기존의 계열을 수정하여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5개 계열로 통합하였다.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도 17개에서 9개로 그 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행동영역은 개념 및 원리 이해, 문제 인식 및 명료화, 대안 탐색 및 선택, 대안 실행 및 적용, 대안 평가 및 일반화 5개 영역으로 개선(Kim, J. G. etc., 2012)되었다.

특히, 실업계고 명칭이 2007년 전문계고로 바뀐 이후 2011년 고등학교 유형 변경(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변경 되었는데 이것은 명칭의 변경 뿐만 아니라 계속 교육의 기회를 넓혀 주었던 정책을 선취업, 후진학으로 변경하면서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취업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 경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고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수능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거둔 성과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 공업계열에서 이루어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공업계열 특성화고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만 수능에서 공업계열만 분리하여 정책을 제시할 수 없고 직업탐구 영역과 연동하여 이루어지므로 공업계열만 한정하지 않고 직업탐구 영역의 큰 틀에서 연구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대입 개선 방안과 함께 향후 직업탐구 영역의 안정적인 출제 및 시행은 물론, 특성화고 학생들의 계속교육 정책과 관련된 대학입학전형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 공업계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며 이 성과들의 긍정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 공업계열에서 파생된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이 당면 과제들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 II. 특성화고 학생의 진학과 취업

### 1.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률과 취업률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0년에만 졸업생 수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

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졸업생 수가 최고인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2009년에는 약 50%, 2011년에는 약 38%로 감소한 것이다. 진학희망률도 2010년과 1990년을 비교해 볼 때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입학이 취업 목적이라기 보다는 진학에 목적을 두는 학생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현재 특성화고의 방향 즉 진학보다는 취업을 강조하는 정책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 희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학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3년까지 10%미만에 그쳤던 졸업생의 진학률은 1998년에 30%를 넘어섰고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도입된 2004년에는 60%를 넘어 약 10년 사이에 6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학률이 증가하다가 2009년에 73.5%의 진학률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불과 2년 사이에 60.9%로 12.6%가 급감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진학 희망률과 진학률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반대로 취업률은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1991년 취업률은 80.2%로 매우 높았으나 이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하락률은 갈수록 심화되어 2008년에는 20%미만이 되었다. 이러한 하락은 2009년 16.7%를 정점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해에 진학률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한 경향과는 반비례이다. 2005년부터 진학희망률이 70%를 넘으면서도 취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2004학년도 동일계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과 2005학년도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의 도입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희망률이나 진학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을 정점으로 진학률과 진학 희망률이 최고, 취업률이 최저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진학률이 감소하고 취업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2010년에 발표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직업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문계 고등학생 졸업생의 진로가

취업은 극히 저조하면서 진학위주로 편중된 데에는 동일계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및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전문계고 학생에게 계속교육 기회 확대 정책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높았던 교육열이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더욱 강화되면서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학욕구도 증대되고, 고등교육기관의 정원 증가 및 학생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경쟁률의 저하, 수도권 이외 지방대학들의 정원확보 문제,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와 같은 다양해진 대학입학전형제도, 전문계고 학생의 전반적인 학력 상승 등도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로가 진학위주로 편중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의 인력수요가 고급 직업기술을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된 것과 함께, IMF 금융위기 이후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진입, 젊은 노동인력의 3D업종 취업기피 현상, 학력 간 임금 격차 증가 등과 같은 취업 여건 및 처우 문제, 즉 노동시장의 변화도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저조를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Lee, Y. R. etc., 2010; Kim, J. G. etc., 2010; Kim, J. G., 2009; Park, D. Y. etc., 2009; Kim, J. G. etc., 2005; Joe, P. Y., 2005. 9. 4.; Kim, H. D. etc., 2003; Lee, Y. H. etc., 2002; Lee, Y. H., 2000).

## 2. 계열별 졸업생의 진학률과 취업률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과 취업 등 진로 변화 추이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농업계의 경우는 2001년 진학률과 취업률이 비슷하다가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진학률은 낮아지고 취업률은 약간 증가하였다. 진학률이 정점인 2009년에는 진학률이 75.7%, 취업률이 11.9%로 그 차이가 6.3배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3.2배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진학률이 50.1%로  
 률을 나타냈다. 공업계의 경우는 2001년 취업률

<Table 1> College Entrance and Employment Rate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Year	Graduation	Wishing College Entrance		College Entrance		Employment	
	Graduates	Students Wishing Entrance	Ratio <sup>1)</sup>	Students of Entrance	Ratio <sup>1)</sup>	Employed	Ratio <sup>1)</sup>
1990	274,150	60,570	22.1	22,710	8.3	210,113	76.6
1991	272,365	59,789	22.0	21,302	7.8	218,433	80.2
1992	274,677	63,517	23.1	23,851	8.7	218,888	79.7
1993	272,541	70,045	25.7	26,481	9.7	209,871	77.0
1994	263,962	80,675	30.6	39,914	15.1	192,165	72.8
1995	259,133	92,288	35.6	49,699	19.2	190,148	73.4
1996	274,696	107,962	39.3	60,373	22.0	196,403	71.5
1997	273,912	129,934	47.4	79,961	29.2	177,532	64.8
1998	302,416	162,088	53.6	107,824	35.7	164,075	54.3
1999	290,892	146,835	50.5	112,130	38.6	148,478	51.0
2000	291,047	147,893	50.8	122,170	41.9	149,543	51.4
2001	270,393	140,997	52.1	121,411	44.9	130,968	48.4
2002	231,127	125,932	54.4	115,103	49.8	104,138	45.1
2003	189,510	107,972	56.9	109,234	57.6	72,212	38.1
2004	182,835	112,955	61.8	113,944	62.3	60,062	32.9
2005	170,259	120,585	70.8	115,164	67.6	47,227	27.7
2006	162,600	116,887	71.9	111,601	68.6	42,151	25.9
2007	158,708	120,309	75.8	113,487	71.5	32,075	20.2
2008	158,408	122,683	77.4	115,407	72.9	30,036	19.0
2009	151,410	119,112	78.7	111,348	73.5	25,297	16.7
2010	156,069	119,279	76.4	111,041	71.1	29,916	19.2
2011	113,896	74,301	65.2	69,382	60.9	29,729	26.1

Notes. 1) Percentage.

Data: KICE issue paprer of major fields for 2010.

MEST·KEDI,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each year).

진학률 46.4%보다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2007년에는 진학률이 72.5%, 취업률이 22.4%로 3.2배 높아 진학률 정점이 되면서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진학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2011년 진학률이 59.8%, 취업률이 25.2%로 여전히 진학률이 2.3배 높았다. 상업계의 경우는 2001년 취업률이 60.1%로 계열별 취업률 중 가장 높은 계열에 해당하였다. 당시 진학률은 35.1%로 계열별 진학률 중 가장 낮았으며 취업률이 진학률 대비 1.7배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상업계열도 다른 계열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진학률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진학률 69.6%, 취업률 20.4%로 3.4배 정도로 별

어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진학률 61.0%, 취업률 28.5%로 2.1배로 차이가 줄어들었다. 농, 공, 상업계열을 비교해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상업계의 취업률이 가장 높으며 공업계, 농업계 순으로 나타나 2001년의 농, 공, 상업계열 진학률과 취업률 추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에 수산·해운계의 경우 2001년에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았으나 2002년부터 2003년에는 취업률이 진학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후 지속적으로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아졌으나 2008년 진학률 60.0%, 취업률 32.8%로 1.8배 높았으며 2011년 진학률은 50.1%, 취업률 34.3%로 1.5배의 차이가 나타나 진학률과 취업률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농, 공, 상업 계열의 변화 추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수산업 계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실업계의 경우에는 2001년 진학률이 70.6%, 취업률 21.2%로 3.3배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후에도

진학률과 취업률이 증가 추세이지만 그 변화가 크지 않아 2011년 진학률이 66.5%, 취업률 19.8%로 3.36배로 나타나 2000년대 초반의 70%의 높은 진학률을 유지하고 있다.

<Table 2> College Entrance and Employment Rate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by Subdivision

Classification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Agricultural	Graduates	9,580	8,933	6,952	6,786	6,214	6,784	6,654	7,088	4,896	5,017	5,348
	Entrance rate	45.8	51.6	54.8	59.3	64.1	68.7	71.0	70.5	75.7	72.1	65.8
	Employment rate	43.6	40.8	38.1	33.4	29.6	14.5	18.6	18.3	11.9	15.7	20.3
Technical	Graduates	112,287	95,746	78,222	74,256	69,675	66,218	68,381	66,803	57,207	57,770	51,296
	Entrance rate	46.4	52.1	58.8	65.2	69.0	68.6	72.5	71.9	72.3	67.1	59.8
	Employment rate	50.1	45.3	40.3	34.3	27.7	27.6	22.4	20.1	17.2	21.2	25.2
Commercial	Graduates	127,595	108,151	88,297	80,508	72,933	68,861	65,284	62,497	48,512	50,031	48,111
	Entrance rate	35.1	40.7	46.9	55.3	60.6	61.3	64.6	67.2	69.6	69.0	61.0
	Employment rate	60.0	56.1	48.9	40.2	36.9	35.2	30.8	25.8	20.4	22.3	28.5
Fishery & Marine	Graduates	2,571	1,869	1,357	1,301	1,493	1,449	1,445	1,414	1,201	1,271	1,491
	Entrance rate	47.8	43.1	41.8	46.0	53.2	52.0	55.6	60.0	55.5	53.9	50.1
	Employment rate	44.5	52.1	46.4	39.0	42.4	41.5	35.8	32.8	33.4	40.4	34.3
Vocational	Graduates	1,072	1,341	1,787	3,447	4,498	4,613	4,389	5,491	11,656	11,185	7,650
	Entrance rate	70.6	67.0	72.8	66.1	67.2	71.3	76.1	73.9	72.8	71.2	66.5
	Employment rate	21.2	30.4	25.0	23.2	26.3	23.3	18.8	17.3	18.0	20.9	19.8
Total	Graduates	253,105	216,040	176,615	166,298	154,813	147,925	146,153	143,293	151,410	156,069	113,896
	Entrance rate	40.8	46.4	52.7	60.0	64.6	65.1	68.9	69.8	73.5	71.1	60.9
	Employment rate	54.7	50.5	44.4	36.9	32.2	30.5	26.0	22.5	16.7	19.2	26.1

Data: MEST·KRIVET(2012). The status of specialized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comprehensive high school for 2011.

KICE issue paper of major fields for 2010.

MEST·KEDI,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each year).

### 3. 특성학교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분야 변화

특성학교 졸업생의 진학과 취업 분야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1990년~1997년에는 전문대에 60%정도, 4년제 대학에 30% 정도 진학하다가 이후 2002년까지 전문대에 70%정도, 4년제 대학에 20%정도 진학하고 있어 중간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대의 진학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38.1%로 가장 높았고 다음 해인

2005년에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37.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동일계 대학 정원의 특별전형이 처음 적용되었던 2004년,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처음 적용된 2005년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4년제 대학 입학의 문호를 확대하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더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약간 하락하였으나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의 경우에는 1997년에 전공 분야에 85.6%, 다른 분야에 14.4%를 정점으로 전공 분야에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후 전공 분야

의 취업률은 소폭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2011년에 74.9%로 나타나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공 분야 취업이 1990년도에 비하여 약간 저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른 분야 취업률은 2006년(28.4%)과 2005년(27.8%)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에 전공 분야 취업률이 높아진 것과는 반대로 다

른 분야의 취업률은 약간 하락하였다. 2005년보다 최근 전공 분야 취업률이 약간 상승하고 있으나 1990년대와 비교해 보면 전공 분야 취업률이 7%정도 하락하여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공 분야 취업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Entrance and Employment Field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Year	Entrance				Employment	
	Junior college	University of education	University	Industrial university	Major fields	Other fields
1990	14,989(66.0)	106(0.5)	7,261(32.0)	354(1.6)	174,057(82.8)	36,056(17.2)
1991	13,544(63.6)	112(0.5)	7,266(34.1)	380(1.8)	177,915(81.9)	39,453(18.1)
1992	15,110(63.4)	172(0.7)	8,135(34.1)	434(1.8)	178,381(81.5)	40,507(18.5)
1993	16,266(61.4)	171(0.7)	9,527(36.0)	517(2.0)	167,695(79.9)	42,176(20.1)
1994	26,628(66.7)	296(0.7)	12,131(30.4)	859(2.2)	159,100(82.8)	33,065(17.2)
1995	33,070(66.5)	317(0.6)	15,957(32.1)	355(0.7)	158,483(83.3)	31,665(16.7)
1996	40,171(66.5)	311(0.5)	19,225(31.8)	666(1.1)	167,184(85.1)	29,194(14.9)
1997	54,163(67.7)	210(0.3)	24,751(31.0)	837(1.1)	152,047(85.6)	25,485(14.4)
1998	78,941(73.2)	138(0.1)	27,313(25.3)	1,432(1.3)	132,574(80.8)	31,516(19.2)
1999	81,488(72.7)	139(0.1)	29,470(26.3)	1,033(0.9)	114,898(77.4)	33,580(22.6)
2000	88,914(72.8)	133(0.1)	31,968(26.2)	1,155(1.0)	115,028(76.9)	34,515(23.1)
2001	88,249(72.7)	157(0.1)	32,063(26.4)	942(0.8)	99,496(76.0)	31,472(24.0)
2002	81,307(70.6)	74(0.0)	32,614(28.3)	1,108(1.0)	80,973(77.8)	23,165(22.2)
2003	70,334(64.4)	116(0.1)	37,956(34.8)	828(0.8)	54,602(75.6)	17,610(24.4)
2004	69,648(61.1)	86(0.0)	43,363(38.1)	847(0.7)	43,352(72.2)	16,710(27.8)
2005	71,376(62.0)	133(0.1)	42,950(37.3)	705(0.6)	33,834(71.6)	13,393(28.4)
2006	70,664(63.3)	120(0.1)	40,295(36.1)	522(0.5)	30,136(71.5)	12,015(28.5)
2007	73,679(64.9)	106(0.1)	39,138(34.5)	564(0.5)	23,568(73.5)	8,507(26.5)
2008	74,056(64.2)	78(0.0)	41,115(35.6)	158(0.1)	21,737(72.4)	8,299(27.6)
2009	72,977(65.5)	91(0.0)	37,883(34.0)	374(0.3)	18,962(75.0)	6,335(25.0)
2010	71,759(64.6)	128(0.1)	38,127(34.3)	743(0.7)	22,734(76.0)	7,182(24.0)
2011	63,568(65.3)	122(0.1)	32,703(33.6)	798(0.8)	26,725(74.9)	8,973(25.1)

Notes. ( ) is Percentage.

Data: MEST·KRIVET(2012). The status of specialized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comprehensive high school for 2011.

KICE issue paprer of major fields for 2010.

MEST·KEDI,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each year).

### Ⅲ.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수능 직업탐구영역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현장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안)을 구성한 후 수능 직업탐구

영역 공업계열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 8명에게 설문 문항(안)을 검토 받았다. 확정된 설문지는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남·대전·세종, 충북, 경북·대구·울산, 경남·부산, 전북, 전남·광주 등 9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규모가 크거나 잘 운영되고 있는 특성

합 승 연

화고를 통해 확정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지역 별로 10명의 교사가 대상이었으며 서울 지역은 특성화고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 지역만

20명의 교사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100명의 교사가 설문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N=100		
			N	Ratio(%)	Total(N)
Areas	Metropolitan	Seoul	20	20.0	30
		Gyeonggi	10	10.0	
		Total	30	30.0	
	Gangwon	Gangwon	10	10.0	10
	Chungcheong	Chungcheongbuk	10	10.0	20
		Chungcheongnam	10	10.0	
		Total	20	20.0	
	Gyeongsang	Gyeongsangbuk	10	10.0	20
		Gyeongsangnam	10	10.0	
		Total	20	20.0	
	Jeolla	Jeollabuk	10	10.0	20
		Jeollanam	10	10.0	
		Total	20	20.0	
	Areas total		100	100.0	100
	Working period (years)	under 10		10	10.0
over 10 ~ under 15			26	26.0	26
over 15 ~ under 20			24	24.0	24
over 20 ~ under 25			23	23.0	23
over 25			17	17.0	17
Career total		100	100.0	100	

2. 조사 도구

수능 직업탐구영역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현장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설문 문항 초안을 만들고 이를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 8명으로부터 검토 받았다. 설문 문항은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가장 큰 성과와 당면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고,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긍정적 파급 효과 및 당면 과제 등의 문항은 효과 및 중요성에 따라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제작되었다.

3. 조사 방법 및 분석

설문 조사는 2013년 7월에 e-mail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 학교에 의뢰하였으며 발송된 설문지는 우편이나 e-mail로 응답을 받았다. 조사 대상 100명의 교사 모두가 응답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Windows용 SPSS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에 대한 인식

2005학년도 수능에 처음으로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이후, 지난 10년간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거둔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은 <Table 5>와 같다. 가장 큰 성과로는 ‘특성화고 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19%)’, ‘특성화고 기피현상 및 미달사태 완화에 따른 모집 경쟁률 제고(12%)’, ‘진학과 취업을 동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이를 통해 특성화고 기피현상이 완화되면서 모집 경쟁률이 높아졌으며 이것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성화고 교육목적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은 특성화고 학생이 진학하기 위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우수 학생 자원 유입으로 신입생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 ‘특성화고 주목적은 기능인력 양성이라

<Table 5> The Most Remarkable Outcom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sup>1)</sup> N(%)

Outcomes Variabl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Total
	Industry	12(12.0)	5(5.0)	7(7.0)	0(0.0)	11(11.0)	35(35.0)	11(11.0)	19(19.0)	0(0.0)	0(0.0)	100(100.0)
Industry	Metropolitan	7(23.3)	2(6.7)	4(13.3)	0(0.0)	1(3.3)	10(33.3)	2(6.7)	4(13.3)	0(0.0)	0(0.0)	30(100.0)
	Gangwon	0(0.0)	0(0.0)	1(10.0)	0(0.0)	1(10.0)	4(40.0)	4(40.0)	0(0.0)	0(0.0)	0(0.0)	10(100.0)
	Chungcheong	0(0.0)	1(5.0)	0(0.0)	0(0.0)	5(25.0)	5(25.0)	3(15.0)	6(30.0)	0(0.0)	0(0.0)	20(100.0)
	Gyeongsang	1(5.0)	1(5.0)	1(5.0)	0(0.0)	3(15.0)	7(35.0)	2(10.0)	5(25.0)	0(0.0)	0(0.0)	20(100.0)
	Jeolla	4(20.0)	1(5.0)	1(5.0)	0(0.0)	1(5.0)	9(45.0)	0(0.0)	4(20.0)	0(0.0)	0(0.0)	20(100.0)
	under 10	0(0.0)	0(0.0)	0(0.0)	0(0.0)	1(10.0)	5(50.0)	1(10.0)	3(30.0)	0(0.0)	0(0.0)	10(100.0)
	over 10 ~ under 15	3(11.5)	1(3.8)	4(15.4)	0(0.0)	1(3.8)	7(26.9)	4(15.4)	6(23.1)	0(0.0)	0(0.0)	26(100.0)
	over 15 ~ under 20	1(4.2)	1(4.2)	1(4.2)	0(0.0)	3(12.5)	8(33.3)	5(20.8)	5(20.8)	0(0.0)	0(0.0)	24(100.0)
	over 20 ~ under 25	6(26.1)	1(4.3)	2(8.7)	0(0.0)	3(13.0)	8(34.8)	0(0.0)	3(13.0)	0(0.0)	0(0.0)	23(100.0)
	over 25	2(11.8)	2(11.8)	0(0.0)	0(0.0)	3(17.6)	7(41.2)	1(5.9)	2(11.8)	0(0.0)	0(0.0)	17(100.0)
	Total	12(12.0)	5(5.0)	7(7.0)	0(0.0)	11(11.0)	35(35.0)	11(11.0)	19(19.0)	0(0.0)	0(0.0)	100(100.0)

Nates. 1) Outcomes ①~⑩

- ① Raise of ratio of entrance due to evasion and entering students lacks of specialized high school
- ② Progress of learning level about excellent entering students on specialized high school
- ③ Improvement of recognition on specialized high school that are for troubled students
- ④ Improvement of recognition on specialized high school that are training for technical workers
- ⑤ Achievement of educational targets on all of admission and employment.
- ⑥ Desire to continue education and entering university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 ⑦ Easing the burden of learning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who wants to enter university
- ⑧ Motivating learning enhancement and recognition on importance of professional curriculum
- ⑨ Improvement of teaching and instruction methods applying textbooks that used from teachers.
- ⑩ Progress of item development ability on specialized high school teachers

시에 강조하는 특성화고 교육목적 구현(11%)’, ‘대학진학 희망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직업탐구 영역의 도입과 시행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는 편향된 특성화고 인식 개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평가전문성(선다형 문항개발능력) 신장’ 항목은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탐구 영역의 시행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개



선이나 평가 전문성 향상 등 교사에 대한 효과보다는 학생의 대학진학 욕구 충족 및 학교의 특성화고 교육목적 구현 등 학생과 학교에 대한 성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특성화고 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 항목이 가장 높은 성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 항목이 가장 큰 성과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은 강원권에서 성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로 차이가 큰 항목에 해당된다. 각 항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특성화고 기피현상 및 미달사태 완화에 따른 모집 경쟁률 제고’는 수도권과 전라권에서 20%이상 나타나 이 지역에서는 특성화고 경쟁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원인을 직업탐구 영역의 도입과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성화고 교육목적 구현’은 충청권에서 25%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수도권 및 전라권에서는 5%이하로 나타나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과는 크지만 특성화고 교육목적 구현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희망 특성화고생의 학습부담 경감’ 항목은 강원권에서 40%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에서는 10%미만으로 나타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탐구 영역의 시행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의 길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직업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에 따라 진학하는 대학의 차이가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를 교사의 경력에 따라 분석해 보면,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성화고 교육목적 구현’ 항목에 높게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 항목은 경력이 적을수록 높게 반응하였

다. 이것은 교사의 경력에 따라 담당하는 교과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 과목과 관련이 적은 전문 교과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과 관련이 있는 공업입문, 기초제도 등의 과목은 경력이 비교적 적은 교사들이 수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가 넘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chi^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시행으로 나타난 성과들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은 <Table 6>과 같다. 긍정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성과로는 ‘특성화고 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4.16)’으로 직업탐구 영역이 실질적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3.95)’,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성화고 교육목적 구현(3.81)’ 성과 순으로 긍정적 파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수 학생자원 유입 증가에 따른 특성화고 신입생 학력수준 향상(3.60)’은 가장 낮은 파급 효과가 나타났지만 모든 성과들은 3.60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4.0 이상으로 조금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성과는 한가지이고 나머지 아홉 가지 성과는 보통으로 나타나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성과들은 없었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시행으로 나타난 성과들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4.0 이상의 성과가 3개인 지역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이며 강원권은 2개로 나타났지만 경상권은 4.0 이상의 성과가 하나도 없어 경상권은 성과들의 파급 효과가 다른 지역 보다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그러나 경상권에서 과급 효과가 가장 큰 ‘특성화고 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3.75)’과 가장 낮은 ‘특성 <Table 6> Outcomes<sup>1)</sup>-Based Positive Effects<sup>2)</sup>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average(standard deviation)

Variables		Effec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dustry	3.65(0.93)	3.60(0.82)	3.61(0.89)	3.71(0.71)	3.81(0.97)	4.16(0.86)	3.67(1.04)	3.95(0.94)	3.62(0.84)	3.66(0.87)
Indu-stry	Metropolitan(n=30) a	4.07(0.94)	3.93(0.78)	3.90(0.84)	4.03(0.72)	3.90(0.88)	4.37(0.81)	3.57(1.10)	3.80(1.06)	3.70(0.99)	3.77(1.04)
	Gangwon(n=10) b	3.20(0.92)	3.40(1.07)	3.40(1.17)	3.40(0.70)	3.60(1.35)	4.30(0.82)	3.90(1.29)	4.10(0.57)	3.50(0.85)	3.80(0.79)
	Chungcheong(n=20) c	3.20(1.06)	3.20(0.77)	3.25(1.02)	3.35(0.67)	4.05(1.10)	4.10(0.91)	3.80(1.15)	4.20(0.77)	3.45(0.76)	3.65(0.67)
	Gyeongsang(n=20) d	3.35(0.67)	3.35(0.75)	3.45(0.76)	3.65(0.75)	3.65(0.93)	3.75(0.79)	3.50(0.89)	3.55(1.00)	3.40(0.75)	3.35(0.93)
	Jeolla(n=20) e	4.00(0.56)	3.85(0.59)	3.80(0.62)	3.80(0.52)	3.70(0.80)	4.25(0.91)	3.75(0.85)	4.25(0.85)	3.95(0.69)	3.75(0.72)
	F	5.33** a>c	3.96* a>c	2.27	3.77*	0.68	1.76	0.43	2.13	1.47	0.87
	under 10 (n=10)	3.30(0.95)	3.40(1.07)	3.10(0.99)	3.50(0.71)	3.70(1.06)	4.40(0.70)	4.00(0.82)	3.90(1.10)	3.90(0.74)	3.90(0.88)
	over 10 ~ under 15(n=26)	3.58(1.03)	3.65(0.94)	3.81(0.98)	3.85(0.73)	3.58(1.14)	4.19(0.85)	3.58(1.06)	4.08(0.98)	3.65(1.02)	3.65(1.06)
	over 15 ~ under 20(n=24)	3.67(0.82)	3.50(0.78)	3.63(0.82)	3.71(0.62)	4.17(0.70)	4.29(0.81)	3.71(1.08)	3.92(0.93)	3.67(0.64)	3.67(0.64)
	over 20 ~ under 25(n=23)	3.70(0.82)	3.70(0.47)	3.52(0.73)	3.52(0.67)	3.74(0.96)	3.74(1.01)	3.30(1.02)	3.83(0.98)	3.35(0.78)	3.61(0.72)
over 25 (n=17)	3.88(1.05)	3.65(0.93)	3.71(0.92)	3.88(0.86)	3.82(0.95)	4.35(0.70)	4.06(0.97)	4.00(0.79)	3.71(0.92)	3.59(1.06)	
F	0.67	0.35	1.27	1.10	1.26	2.01	1.68	0.24	0.96	0.23	
Total (n=100)	3.65(0.93)	3.60(0.82)	3.61(0.89)	3.71(0.71)	3.81(0.97)	4.16(0.86)	3.67(1.04)	3.95(0.94)	3.62(0.84)	3.66(0.87)	

Notes 1) Outcomes ①~⑩

- ① Raise of ratio of entrance due to evasion and entering students lacks of specialized high school
- ② Progress of learning level about excellent entering students on specialized high school
- ③ Improvement of recognition on specialized high school that are for troubled students
- ④ Improvement of recognition on specialized high school that are training for technical workers
- ⑤ Achievement of educational targets on all of admission and employment.
- ⑥ Desire to continue education and entering university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 ⑦ Easing the burden of learning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who wants to enter university
- ⑧ Motivating learning enhancement and recognition on importance of professional curriculum
- ⑨ Improvement of teaching and instruction methods applying textbooks that used from teachers.
- ⑩ Progress of item development ability on specialized high school teachers

2) Scales : 1 = No effects, 2 = rarely effects, 3 = common effects, 4 = a few effects, 5 = very well effects

3) \*\* < .01, \* < .05

화고 기피현상 및 미달사태 완화에 따른 모집 경쟁률 제고(3.35)’, ‘우수 학생자원 유입 증가에 따른 특성화고 신입생 학력수준 향상(3.35)’,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평가전문성(선다형 문항 개발능력) 신장(3.35)’과의 차이가 0.4로 작아 경상권에서는 성과들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타났으며, 가장 효과가 낮게 나타난 곳은 경상권으로 평균 3.50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전체 평균은 3.74로 긍정적 과급 효과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가장 과급 효과가 높게 나타난 성과로는 ‘특성화고 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

족'이며 충청권에서만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가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에서는 전문교과에 임하는 학생의 학습 의욕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성과에 따른 권역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 기피현상 및 미달사태 완화에 따른 모집경쟁률 제고' 성과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간에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수 학생자원 유입 증가에 따른 특성화고 신입생 학력 수준 향상' 성과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충청권 간에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주목적은 기능인력 양성이란 편향된 특성화고 인식 개선' 성과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시행으로 나타난 성과들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교사의 경력에 따라 분석해 보면, 경력 25년 이상의 교사들이 긍정적 파급 효과 평균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 20년~25년 교사들의 평균은 3.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 경력에 따른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대학진학 희망 특성화고생의 학습부담 경감',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평가전문성(선다형 문항개발능력) 신장' 등 학생의 전문 교과 학습 및 교사의 교수학습 측면의 성과들에 대해 10년 미만 경력의 교사들의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10년 미만의 교사들이 수능과 관련된 전문 교과의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직업탐구 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

2005학년도 수능에 처음으로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이후, 지난 10년간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파생된 가장 큰 당면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은 <Table 7>과 같다. 가장 큰 당면과제로는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중심 설립 취지에 근거한 특성화고 정체성 혼란 가중(22%)',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특성화고 학생 증가(1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 학생 과다(응시인원 저조)(11%)',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한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교육 부적응 문제(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반응한 당면 과제를 분석해 보면, 더 많은 대학에서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를 반영하여야 학교에서 전문교과 수업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고취되며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가장 큰 당면 과제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당면과제는 직업탐구 영역의 활성화 측면 보다는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더욱 두드러진 특성화고 정체성에 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어서 이들 두 가지 당면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많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에 '특성화고 현장의 기계적 문항풀이 위주 수업 현상 심화',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특성화고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나, 당면과제로서 가장 반응이 높은 내용과 가장 낮은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특성화고 교사들은 직업탐구 영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를 통해 직업탐구 영역이 더욱 발전되고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이 앞으로도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파생된 가장 큰 당면과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하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이 가장 큰 당면 과제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 탐구 미반영’,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특성 생 과다(응시인원 저조)’,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 화고 정체성 혼란 가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특성화고생 증가가 높 교사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만 당면과제 <Table 7> The Most Problems<sup>1)</sup>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N(%)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Total
Variables												
	Industry	22(22.0)	4(4.0)	1(1.0)	0(0.0)	12(12.0)	34(34.0)	11(11.0)	10(10.0)	1(1.0)	5(5.0)	100(100.0)
Industry	Metropolitan	6(20.0)	0(0.0)	0(0.0)	0(0.0)	7(23.3)	3(10.0)	9(30.0)	3(10.0)	0(0.0)	2(6.7)	30(100.0)
	Gangwon	0(0.0)	1(10.0)	1(10.0)	0(0.0)	1(10.0)	6(60.0)	0(0.0)	0(0.0)	0(0.0)	1(10.0)	10(100.0)
	Chungcheong	5(25.0)	0(0.0)	0(0.0)	0(0.0)	2(10.0)	7(35.0)	0(0.0)	5(25.0)	1(5.0)	0(0.0)	20(100.0)
	Gyeongsang	7(35.0)	0(0.0)	0(0.0)	0(0.0)	1(5.0)	8(40.0)	1(5.0)	2(10.0)	0(0.0)	1(5.0)	20(100.0)
	Jeolla	4(20.0)	3(15.0)	0(0.0)	0(0.0)	1(5.0)	10(50.0)	1(5.0)	0(0.0)	0(0.0)	1(5.0)	20(100.0)
	under 10	2(20.0)	0(0.0)	0(0.0)	0(0.0)	1(10.0)	4(40.0)	1(10.0)	1(10.0)	0(0.0)	1(10.0)	10(100.0)
	over 10 ~ under 15	8(30.8)	1(3.8)	0(0.0)	0(0.0)	3(11.5)	8(30.8)	4(15.4)	1(3.8)	0(0.0)	1(3.8)	26(100.0)
	over 15 ~ under 20	3(12.5)	0(0.0)	1(4.2)	0(0.0)	2(8.3)	11(45.8)	2(8.3)	4(16.7)	0(0.0)	1(4.2)	24(100.0)
	over 20 ~ under 25	4(17.4)	2(8.7)	0(0.0)	0(0.0)	3(13.0)	7(30.4)	3(13.0)	3(13.0)	0(0.0)	1(4.3)	23(100.0)
	over 25	5(29.4)	1(5.9)	0(0.0)	0(0.0)	3(17.6)	4(23.5)	1(5.9)	1(5.9)	1(5.9)	1(5.9)	17(100.0)
	Total	22(22.0)	4(4.0)	1(1.0)	0(0.0)	12(12.0)	34(34.0)	11(11.0)	10(10.0)	1(1.0)	5(5.0)	100(100.0)

Nates. 1) Problems ①~⑩

- ① Confusion identity of specialized high school centering employment
- ② Changing as admission authority due to prepare CSAT
- ③ Management of going side by side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 ④ Deepening of explanation items by rule on specialized high school
- ⑤ Raise of entering students on specialized high school for entering university purposes
- ⑥ No reflecting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as entering data most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 ⑦ Excess students of entering university n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⑧ Maladjusted students of entering university n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⑨ Insistence of unnecessary about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⑩ Decreasing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in specialized high school and related organizations

게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도 쉽게 대학에 진학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대학이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 직업탐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과생된 가장 큰 당면과제를 교사의 경력에 따라 분석해 보면,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

로서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생 과다(응시인원 저조)’,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특성화고생 증가’에 대한 우려는 제시되고 있어 직업탐구 영역으로 인해 전문교과 수업이 활성화되고 학습 의욕이 높아지며 특성화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기회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가 넘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chi^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과생된 당면

<Table 8> Importance<sup>1)</sup> of Problems<sup>2)</sup> on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average(standard deviation)

Variables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dustry	Industry	3.78(0.89)	3.18(0.91)	3.17(0.89)	3.04(0.86)	3.73(0.94)	3.92(0.96)	3.78(0.89)	3.86(0.92)	3.60(0.88)	3.74(0.79)
	Metropolitan(n=30) a	4.03(0.89)	3.20(0.89)	3.13(0.82)	2.87(0.73)	3.90(0.99)	3.73(0.94)	3.90(0.99)	3.97(0.96)	3.77(0.90)	3.87(0.82)
	Gangwon(n=10) b	3.40(0.84)	3.20(1.03)	3.30(0.82)	3.10(0.88)	3.80(1.03)	4.40(0.84)	4.00(0.94)	3.80(0.63)	3.90(0.99)	3.90(1.10)
	Chungcheong(n=20) c	3.45(1.00)	2.95(0.76)	2.95(0.89)	2.70(0.80)	3.55(0.89)	3.85(1.04)	3.45(0.94)	3.90(1.12)	3.35(0.88)	3.80(0.70)
	Gyeongsang(n=20) d	3.85(1.04)	2.80(0.77)	2.95(0.94)	3.00(0.92)	3.30(0.86)	3.75(1.02)	3.75(0.79)	3.55(0.89)	3.45(0.83)	3.35(0.67)
	Jeolla(n=20) e	3.85(0.49)	3.75(0.97)	3.60(0.88)	3.65(0.81)	4.05(0.83)	4.20(0.83)	3.85(0.75)	4.00(0.79)	3.60(0.82)	3.80(0.70)
	F	1.86	3.44 <sup>*</sup> e>d	1.92	4.04 <sup>**</sup> e>a, c	2.16	1.55	1.00	0.80	1.12	1.63
	under 10 (n=10)	3.70(0.82)	3.00(0.94)	3.20(0.79)	3.30(0.67)	3.70(1.06)	4.00(1.05)	3.70(1.06)	3.30(1.16)	3.60(0.97)	3.70(0.95)
	over 10 ~under 15(n=26)	4.04(0.82)	3.19(1.06)	3.00(0.85)	3.00(0.89)	3.73(0.92)	4.00(0.98)	3.88(0.99)	3.85(0.92)	3.88(0.86)	3.69(0.84)
	over 15 ~under 20(n=24)	3.58(0.88)	3.21(0.72)	3.42(0.88)	3.00(0.83)	3.67(0.96)	4.08(0.88)	3.92(0.72)	4.29(0.69)	3.71(0.81)	3.83(0.82)
	over 20 ~under 25(n=23)	3.70(0.88)	3.04(0.93)	2.91(0.95)	3.00(0.95)	3.74(0.96)	3.96(0.98)	3.57(0.99)	3.87(0.92)	3.35(0.88)	3.70(0.70)
over 25 (n=17)	3.82(1.07)	3.41(0.94)	3.41(0.87)	3.06(0.90)	3.82(0.95)	3.47(0.94)	3.76(0.75)	3.59(0.87)	3.35(0.86)	3.76(0.75)	
F	0.91	0.49	1.53	0.26	0.07	1.18	0.57	2.80 <sup>*</sup>	1.63	0.13	
Total (n=100)	3.78(0.89)	3.18(0.91)	3.17(0.89)	3.04(0.86)	3.73(0.94)	3.92(0.96)	3.78(0.89)	3.86(0.92)	3.60(0.88)	3.74(0.79)	

Notes 1) Scales : 1 = No importance, 2 = rarelyimportance, 3 = common importance, 4 = a few importance, 5 = very well importance

2) Problems ①~⑩

- ① Confusion identity of specialized high school centering employment
- ② Changing as admission authority due to prepare CSAT
- ③ Management of going side by side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 ④ Deepening of explanation items by rule on specialized high school
- ⑤ Raise of entering students on specialized high school for entering university purposes
- ⑥ No reflecting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as entering data most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 ⑦ Excess students of entering university n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⑧ Maladjusted students of entering university n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⑨ Insistence of unnecessary about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⑩ Decreasing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in specialized high school and related organizations

3) \*\* < .01, \* < .05

과제들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은 <Table 8>과 같다.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3.92)’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한 특성화고생의 대학교육 부적응 문제(3.86)’,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특성화고 정체성 혼란 가중(3.78)’,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생 과다(응시인원 저조)(3.78)’ 순으로 나타났다. 당면과제들의 중요

성 평균은 3.58로 비교적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대학에서 직업탐구 영역의 반영률이 높아져야 하고 동시에 특성화고 정체성에 대해 취업과 진학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Table 7>의 결과와 유사하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과생된 당면 과제들의 중요성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요성이 4.0 이상인 항목이 모든 권역에서 한 개 이상 나타났다. 충청권은 4.0 이상 항목이 없었다. 또한

충청권은 다른 권역과 달리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한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교육 부적응 문제(3.90)’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특성화고를 대학 진학의 발판으로 삼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적응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당면과제들의 중요성 평균은 전라권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3.68), 수도권(3.64)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따른 중요성 정도는 권역별로 차이가 나타났지만 항목에 따른 중요도 순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면과제들의 중요성에 따른 권역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능 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확대 등에 따른 특성화고 입시기관화’의 경우 전라권과 경상권 간에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현장의 기계적 문항풀이 위주 수업 현상 심화’의 경우에도 전라권과 수도권, 수도권 간에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파생된 당면 과제들의 중요성을 교사의 경력에 따라 분석해보면, 경력 15년~20년 이상 교사들의 중요도 평균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 20년~25년 미만 교사들의 경우 3.5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중요도 평균이 가장 높은 경력 15년~20년을 중심으로 경력 10년 미만이 3.52, 경력 25년 이상이 3.55로 낮게 나타나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면과제 항목에 따른 중요도 경향은 경력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단체와 특성화고 현장의 관심 저하’는 교사의 경력과 관계없이 모든 교사들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어 선취업 후진학을 추진하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전환이 수능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관심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경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

한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교육 부적응 문제’가 .05 수준에서 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반영되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직업탐구 영역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며 이 성과들의 긍정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직업탐구 영역에서 파생된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이 당면 과제들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학년도 수능에 처음으로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이후, 지난 10년간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거둔 가장 큰 성과로는 ‘특성화고 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19%)’, ‘특성화고 기피현상 및 미달사태 완화에 따른 모집 경쟁률 제고(12%)’,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성화고 교육목적 구현(11%)’, ‘대학진학 희망 특성화고생의 학습부담 경감(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성과들에 따라 긍정적 파급 효과 정도를 알아본 결과, 파급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성과는 ‘특성화고 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4.1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3.95)’,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성화고 교육목적 구현(3.81)’ 성과 순으로 긍정적 파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파생된 가장 큰 당면과제로는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특성화고 정체성 혼란 가중(22%)’,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특성화고 학생 증가(1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 학생 과다(응시인원 저조)(11%)’,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한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교육 부적응 문제(10%)’ 순으로 나타났다. 과생된 당면과제들에 따라 중요성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3.92)’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한 특성화고생의 대학교육 부적응 문제(3.86)’,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특성화고 정체성 혼란 가중(3.78)’,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생 과다(응시인원 저조)(3.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반영되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의 파급 효과와 당면 과제의 중요도 결과를 토대로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발전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수능 직업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수를 늘려 특성화고 학생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의 반영 여부는 대학의 자율이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을 통해 직업탐구 영역의 반영 대학 수를 늘린다면, 우수한 학생의 특성화고 유입으로 인해 특성화고 기피현상이나 미달 사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이 증대되어 전문교과 교수·학습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로써 특성화고는 ‘공부 못하고 문제 학생이 가는 학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특성화고 학생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학 진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취업 후진학을 강조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진학을 원할 경우, 학교에서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관련된 교과목의 지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되면서 취업이 강화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진학을 위한 수능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학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수업이나 학교 정책이 취업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학생의 진로는 변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취업이나 선진학을 원하는 학생 모두를 함께 배려하는 학교 현장의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특성화고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취업 중심 아니면 진학 중심 또는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논의를 떠나 특성화고의 현실을 보면 특성화고 정책이 추진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취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원하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지도를 전문계고처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에 진학하였다도 학생이 원한다면 충분한 진로 상담을 통해 취업과 진학을 결정하고 학교는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특성화고 내에서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관련된 학습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의 수능 직업탐구 영역 선택 경향과 이들의 학력 수준 등을 심층 분석하고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성화고 졸업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선취업 후진학의 특성화고로 개편되면서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 인원은 더욱 줄어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특성화고 졸업생 수가 줄고 취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도 진학을 원하는 특성화고 학생이 있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자 집단을 별도로 경쟁하도록 대학 차

원에서 전형 유형 및 모집 단위를 설계하고(Kim, J. H.·Kim, J. G. etc., 2010) 대학 단위에서 직업탐구 영역의 점수를 학생 선발 시에 다양하게 반영하여 직업탐구 영역을 통해 전문교과 학습을 충실히 하면서 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

- Chang, H. K. · Park, J. U. · Lee, S. B.(2006). Specialized high schools in computer perceived by their teachers and students, JFMSE, 18(2). 183~193.
- Hahm, S. Y.(2007). Consideration on industry department test of vocational education area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Journal of industrial education, 32(2), 23~46.
- Heo, G. · Sung, E. M.(2012). An exploring study on the evaluation strategies of the extra-curricula area for admission to a university using SWOT analysis, JFMSE, 24(2). 234~245.
- Joe, P. Y.(2005. 9. 4). Changed specialized high schools. Segye Times, retrieved 2. 10, 2010, from <http://segye.com>.
- Kim, D. T. · Park, B. S. · Kang, I. K.(2013). An analysis on employment to on-board departments graduates of maritime and fisheries high schools, JFMSE, 25(2). 393~404.
- Kim, H. D. · Lee B, U. · Choi G. M.(2003). Measures of industrial education changing in CSAT policy, Foundation research 03-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 education & training.
- Kim, J. G.(2009). Analysis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on the agricultural high school graduates who entered into the agricultural national universiti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41(1), 1~35.
- Kim, J. G. · Kee G. N.(2010). Exploration on the Strategies of Organizing Curriculem for improvement of major basic competencies in the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to University by departments identical to their major,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3), 61~83.
- Kim, J. G. · Lee J. B.(2005).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high schools according to vocational education test establishment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37(4), 135~162.
- Kim, J. G. · Lee J. B.(2010). Analysis of the item types by two-dimensional classification of evaluative objectives on the 'understanding of agriculture'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42(3), 45~79.
- Kim, J. G. · Park Y. S · Kim K. H · Park D. S. (2012). A study on the reformation character of examination evaluative objective and behavioral areas of vocational education test to contain problem solving competenci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3), 43~65.
- Kim, J. H. · Kim J. G. etc(2010). KICE issue paprer of major fields for 2010,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Y. H.(2000). Essence and crisis os specialized high schools education.
- Lee, Y. H. · Jung, C. Y. etc(2002). plans of entering universities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Lee, Y. R. · Joe, J. M. · Shin, I. Y. etc(2010). A basic research for CSAT 2014. KICE
- Mam, B. U.(2010). Analysis of CSAT choice subject standard and practical pl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341~417.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1). Rearing plans for industrial education, Press release.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2009). Vocational education advanced plans of upper secondary school level, Press release.
- MEST·KEDI(2009).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09.
- MEST·KEDI(2010).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10.  
MEST·KEDI(2011).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11.  
MEST·KEDI(2012).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12.  
MEST·KICE(2010). A public hearing book of reorganization CSAT 2014.  
MEST·KRIVET(2012). The status of specialized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comprehensive high school for 2011.  
Park, D. Y. · Back, S. J. · Kim, S. J. · Choi, D. S. · Kim, J. M. · Lee, J. B. · Lee, B. U. · Im, C. J. · Lee, C. U., Song, D. Y.(2009). Advanced plans of specialized high schoo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 education & training.

Park, D. Y. · Jung, C. Y. · Kim J. G.(2009). Progress plans of learning ability about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Policy research 2009-19,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 education & training.  
Park, D. Y. · Jung, C. Y. · Kim J. G. · Hu, Y. J. · Kim, K. H.(2010). The basic learning ability of vocation &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42(3), 1~23.

- 
- 논문접수일 : 2013년 09월 14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10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10일